

투데이 칼럼

중국의 '차항출해'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연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에게 열어줬다. 이미 중국 동북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중국 남방으로 운송되고 있다.

1897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배했던 중국으로선 163년 만에 사용권을 돌려받은 셈이다.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바닷길이 열려서 물류비용을 크게 아끼게 됐다.

중국의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획득은 중국 배들이 본격적으로 한반도 동해를 드나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러시아로 넘어가는 중국 지린성 훈춘 세관 진입로에는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3~4킬로미터 가량 길게 줄지어 있다.

국경을 넘은 중국 화물차들이 도착한 곳은 블라디보스토크항이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지린성의 '내륙 화물 교역 중계항'으로 사용하는 걸 허가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7월 1일부터 자국 항공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 항공기를 빌려 바다로 진출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이 실현된 것이다.

그동안 지린성 등 중국 동북 지역은

유로를 통해 1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라오닝성 다롄항을 통해 해상 화물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항 이용으로 2백 킬로미터 남짓의 해상 운송이 가능해졌다. 유로 운송 거리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 물류비도 획기적으로 줄게 됐다. 관세와 수출입 관련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1890년 베이징 조약 체결로 러시아에 내주기 전까지 '해삼위'라 불리며 지린성에 속했던 블라디보스토크다. 163년 만에 재개된 중국의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은 물류 운송을 넘어 본격적인 동해 진출의 발판을 확보한 셈이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해 진출 전략을 준비했다. 첫 단계가 바로 동해 조업권 확보였다. 해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 바다에는 위태로운 독선에서 변변한

장비도 없이 팬손으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북한 어민들이 있다. 실제로 포류 사건도 빈번하다. 최근 울릉도 바닷가에서 발견된 북한 독선인 시신 4구가 있었다. 같은 달 동해와 맞닿은 일본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시 앞바다에도 독선 한 척이 뒤집힌 채 밀려왔다. 두만강 하구에서 러시아 쪽으로 이어지는 해안선에서도 북한 어선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북한 독선의 잦은 포류와 나포는 중국의 동해 지역 조업 때문이다. 2004년 북한은 중국에 배 1척당 약 4천800만 원을 받고 동해 조업권을 팔았다. 그 뒤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면서 북한 어민들은 어장을 잃고 점점 더 먼 바다로 밀려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수역 조업권 획득을 내세워 한일 중간 수역이자 오징어 황금

어장인 '대화퇴 어장'까지 밀고 들어왔다. 뱃머리에 북한 인공기를 단 중국 어선들은 자인망 생물이 그물로 조업을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중국 어선이 동해에 뛰어들 무렵부터 한국과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하지만 대화퇴는 한일 중간수역인 데다 북한 수역과도 인접해 우리 해경의 단속도 쉽지 않다.

동해에는 오징어는 물론 명태, 정어리 같은 상업성 어종이 많고 연안엔 갑각류와 패류, 해조류도 풍부하다. 이 모든 수산 자원이 위협받고 있다.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동해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 금지를 대북 제재에 포함했지만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획득한 중국의 동해 진출 전략은 2000년대 들어 보다 가시화 했다.

역시 북한을 활용했다. 사용권을 확보한 내진항을 중계 무역항으로 이용하며 '차항출해'를 본격화한 것이다. 2010년 서법적으로 내진항을 통해 동북의 석탄을 상하이로 운송했고, 2015년 식량과 목재 등을 남방으로 이동했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 제재 강화와 2022년 코로나19 확산과 국경봉쇄로 현재는 내진항 사용이 중단됐다.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항이 상당 기간 내진항을 대체할 전망이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 제재 강화와 2022년 코로나19 확산과 국경봉쇄로 현재는 내진항 사용이 중단됐다.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항이 상당 기간 내진항을 대체할 전망이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 제재 강화와 2022년 코로나19 확산과 국경봉쇄로 현재는 내진항 사용이 중단됐다.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항이 상당 기간 내진항을 대체할 전망이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 제재 강화와 2022년 코로나19 확산과 국경봉쇄로 현재는 내진항 사용이 중단됐다.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항이 상당 기간 내진항을 대체할 전망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독자재언

폭염 후 돌아온 장마, 안전운전 요령 숙지

잠시 주춤했던 장마가 다시 시작되면서 전국 각지에 집중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폭우 등에 대비한 안전 운전 요령 숙지가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차량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 전조등, 미등 등 차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마철 운전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아 인지능력이 감소하므로 자신의 차량의 전조등과 미등, 브레이크등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가 올 때는 시야 확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낮에도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이 권장되며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타이어 트레드 홈 깊이가 마보 한계선인 1.6mm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고, 오래된 타이어라면 미리 교체하는 것이 안전하며, 타이어 공기압도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5~10% 높여 접지력과 배수 성능을 향상

필요가 있다. 또한, 야간 운전 시에는 도로 일부분에 갈래 패여 있는 곳에 물이 고여 웅덩이가 생긴 곳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고속으로 물웅덩이를 통과할 시 차량 엔진에 물이 들어가거나,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야간 운전 시에는 더욱 주의하여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시속 10~20km로 통과해야 한다.

만일, 깊은 물웅덩이에 차가 침수되어 운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시동을 다시 끌지 말고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견인 요청 후 차량 점검이 끝난 뒤 운행을 해야 한다.

물웅덩이에 빠져 차가 침수될 때 계속해서 시동을 걸게 되면 내연기관의 차량은 엔진과 부속 부품이 망가질 수 있다.

특히 전기 차량은 고전압 배선과 연결되어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김평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순찰1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드노믹스' 효과 강조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각) 시우스캐롤라이나주 웨스트켈럼비어의 플렉스 LTD에서 경제 의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슬로건인 '바이드노믹스' 효과를 강조하면서 "공화당 지역에 더 도움 된다"라고 주장했다.

사설

실버세대 파크골프 열풍

최근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파크골프는 비용이 저렴한 데다 운동체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파크골프(park golf)는 Park(공원)과 Golf(골프)의 합성어다.

잘 가꾸어진 잔디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을 치고 경쟁하는 스포츠다.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세계 휘트니스도 멀리 안 나가는 까닭에 '정타'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됐다. 현재 홋카이도에는 600여 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와이, 호주, 중국, 미주 등에서도 저변이 넓은 스포츠다. 경기 방식은 골프와 비슷하다.

출발 지점(티오프)에서 홀컵을 향해 볼을 치고 차례로 코스를 돈다. 최종 코스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컵에 볼을 넣는 사람이 승리한다. 보통 4인 1조로 게임을 하며 게임당

18홀 기준으로 약 1시간 30분~2시간이 소요된다.

파크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년층이다. 실버세대 회원만 11만 명에 이른다. 장비도 간단하고 경제적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료 개방인 곳이 많고 돈을 지불해도 하루 기준 1만원이 채 안 된다.

또 도심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기존 골프장보다 축소된 형태여서 운동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가족 파크골프 교실'을 운영 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자체들도 저마다 파크골프장 설치에 나섰다.

전북 부안군은 2022년 12월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일원에 6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어르신 생활체육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의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이다. 파크골프 조성을 통해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장 이용 환경을 기대한다.

전북의 통일교육관 설립 문제

전북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최근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북도의회와 전북겨레하나, 전주YMCA, 전북대 한반도평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 지역 '통일교육관(통일관)'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됐다. 다른 지역에 다 있는 통일관이 유독 전북에만 없기 때문이다. 통일관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통일관은 현재 지자체별로 어떤 지역은 2개, 혹은 3개까지 있다. 정부는 국민의 통일교육을 위해 전국 13곳에 통일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현재 통일관이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양구(강원), 철원(강원), 고성(강원), 청주(충북), 충남(공주), 대전, 광주, 경남, 부산, 제주 등이다. 13개 통일관 가운데 통일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 한 곳

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의 통일교육원에서는 전시 내용물 등을 지원할 뿐이다.

통일관은 1986년 구 통일연구소 청사 내에 개관함으로써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후 호응이 높아지면서 각 지방에서도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1988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통일관을 설치했다. 그 뒤 점차적으로 부산, 광주 등지에도 통일관이 들어섰다. 지금까지 전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곳곳에서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교육관에는 북한 실상 및 대북정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전시 패널과 관련 동영상 자료 등이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북통일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지역에도 하루빨리 통일교육관 건립을 서두르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